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22장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변하시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 날부터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23:1)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 또한 질문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제자들과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책망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리와 하시는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23:2)

헬라어로 자리는 ‘카테드라’인데, 이것은 직위나 임무를 가리킵니다. 즉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느니라”고 교훈하십니다.

21장에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저들을 겨냥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들도 그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눈치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상기시키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명목상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나는 기독교 국가에 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23:3-4)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짐을 너무 많이 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사진들 중에도 엄청난 크기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리만 보여 마치 큰 짐에 다리가 달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짐을 실은 당나귀의 모습입니다. 짐이 옆구리까지 내려와 이것도 마치 네 다리가 달린 짐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짐을 진 광경들을 일상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술을 크게 하고”(23:5)

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그들의 모든 경건은 외식적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과 동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영적인 지도자로 우러러 보게끔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입었던 옷과 그들이 개발했던 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영적이고 의로운 자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진정한 경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저녁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저에게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저는 혼자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요?”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당신 혼자 일어서게 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성도님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 드릴 때 또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의 옛 성품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활동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 곧 옛 성품은 언제나 자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영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읽는 데 들이고 있는가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주 실제의 영적 상태보다 더 영적인 상태로 비쳐지기를, 또한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헌신하는 상태로,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을 남들에게 주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위선자가 됩니다.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문이란 보통 기도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마나 왼 팔에 묶어둔 조그만 상자로서, 출애굽기 13:9에 나오는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져서는 안 되었으므로 안식일만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이 경문을 차야 했습니다. 팔에 차는 작은 가죽상자 안에는 구약에서 따온 네 구절의 성경말씀을 한데 적은 초미니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고, 이마에 묶은 다른 가죽상자 안은 네 칸으로 나누어져 같은 성경말씀을 각 구절별로 따로 따로 적은 작은 두루마리 네 개가 한 칸에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넓게 만들어 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로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옷술을 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옷술이란 유대인 남자의 위에 입는 겹옷의 네 끝에 있는 가 장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민 15:38)고 하였고, “입는 겹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신 22:12)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 가면 그곳에 나와 기도하는 유대인들 중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 이같은 경문을 꺼내 이마와 팔에 차고 또 네 귀에 술을 단 기도수건을 꺼내어 머리를 덮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옷에 술을 다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 존경을 받으려고 그들의 옷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하느니라”(23:6-7)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에 앉기를 좋아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회당의 상좌는 존경받는 위치로서 건물의 정면에 위치해 있어서 회중들과 마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그를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경건한 태도와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박사’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계급구조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잔치의 말석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의 자리는 저기 상석입니다. 저리로 가서 앉으십시오’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자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네, 저 밑으로 가서 앉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들은 높은 자리와 명예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23:9)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에 의해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직자 모임에서 성공회나 천주교의 사제들과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줘야 할지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들을 신부(Father)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23:10)

예수님은 호칭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저들이 호칭(title)을 너무 좋아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호칭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계급구조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높이며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격한 어조로 꾸짖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화를 내고 떠든다면 그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어느 때 갑자기 울분을 터뜨리게 되면 모두가 ‘어찌된 일인가’하면서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특히 주목을 끄니다.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소위 영적 지도자들과 자처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일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그 상대방 남자도 잡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여자들만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들의 살기등등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온유하게, 관용과 자비와 친절의 태도로 그 죄인이었던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또 새 남자를 맞아 결혼식도 없이 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태도로 그녀에게 영생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는 자들을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자처했던 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기를 좋아했던 자들에게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불행스럽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 자신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KJV 23:14)고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 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23:15-22)

예수님은 저들의 전통적인 규례와 가르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맹세할 때 ‘성전에 대고’ 하면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에 대고’ 맹세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식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전통이 저들의 신앙체계가 되었고 교의와 교리의 일부가 되어 백성들을 옳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23:23)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향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식에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아주 주의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십일조를 드렸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 즉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faith)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일조에 관하여는 예수님도 분명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와 인과 신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소경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23:24)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우선 천으로 한 번 걸러 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살이를 특별히 걸러내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의 율법에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으므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철두철미한 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약대는 통째로 삼키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세밀히 신경을 쓰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놓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23:25)

속이 아주 더러운 컵이 겉은 아주 아름답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걸만 보고 그 잔으로 마시려고 하다가 그 속의 온갖 먼지와 벌레와 찌꺼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속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죄의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소경 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23:26)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내면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

여기에서 마음의 뜻이란 쉽게 말해서 동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각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에 따라 칭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의와 경건이 없으면서도 외적인 종교적 의식을 행하여 얼마든지 의로운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드러난 행동보다도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의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23:27-29)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기드론 계곡에 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들을 얼마나 보기 좋게 꾸며놓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다윗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보면 은으로 된 관이 있고 그 속에 다윗의 유해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무릎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주변을 잘 장식해 놓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다윗의 무덤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때 있었다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23:34-36)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지상최대의 전무후무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던 대로,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23:37)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23:38)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23:39)

박해가 아주 심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너무 커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 평화회의’라는 모임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연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보니 미아 샤림지역에서 한 랍비가 보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건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일부 극단주의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편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존립할 권리가 없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것은 타당치 않다는 특이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루살렘 평화회의'를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했던 유대인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편지를 보여주며 '여기 귀한 감사장이 왔습디다' 했더니 그들은 그 편지를 보고 '척 목사, 이 친구들은 극단 과격주의자들이니 신경쓰지 마십시오. 광적인 사람들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분은 랍비인데요' 했더니 그들 말이 '랍비들도 광적인 극단주의자일 수 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랍비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년 전에 몇몇 랍비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야일 리가 없다고 한 몇몇 랍비들이 오늘날 내게 이 편지를 보낸 이 극단주의자 랍비와 같은 광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